

정당 지지에 대한 세대별 차이 고찰

An Empirical Study on Difference of Approval Rate for the Political Parties among Generations

우경봉(한국방송통신대)*

Kyoungbong Woo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whether intergenerational differences exist in support among major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if so, how they exis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nationwid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questionnaire was prepared based on conjoint analysis,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applying a random parameter logit model. The main results of model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the policy variable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observed in the generation of 20s and 30s for the education variable. It was found that both 20s and 30s aimed for equal education at a higher level than other generations. Especially, the highest intensity aim for equal education culture was observed in the 20s. Second, the coefficients of major political parties were observed with a high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appears to be a result suggesting that voters decide on their voting behavior through thorough policy comparisons in addition to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n various current issues. Third, a clear support for conservative parties was observed in the generation of 20s. A clear and intense distribution of preference for political parties classified as conservatives was observed in the 20s generation, which can be said to be mainly college students. This seems to be a profound founding related to the issue of “conservatization of the 20s,” which has recently become a hot topic in Korean society. Fourth, a high level of support for progressive parties was observed in the 30s and 40s. The Justice Party can be classified as a minority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House as of January 2019. Nevertheless, it was maintained at a relatively high level in national recognition, and it is presumed that the background was high level of support from the 30s and 40s. Fifth, a large level of standard deviation was observed in the preference for conservative parties in the 50s. This means that some respondents who

* 한국방송통신대 무역학과 부교수. 이메일: wkb@knou.ac.kr.

are in their 50s or older strongly support the Liberty Korea Party, and some respondents in the same generation strongly disapprove it. Due to this countervailing power, it seems that the average support level for the Liberal Korean Party is low in the generations of 50s and older.?

Keywords

Approval rate, Generation, Conjoint Analysis, Random Parameter Logit

I. 서론

이 논문은 한국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떤 양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목표로 한다.

최근 세대 간 갈등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임홍택(2019)은 그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받는 90년대 생들의 조직 내부 및 소비자로서의 특징을 정리하여 화제가 되었다. 천관율·정한울(2019)은 특히 20대 남성에서 여성에 비해 유독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총 208개에 이르는 조사문항을 바탕으로 20대 남성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했다. 천관율·정한울(2019)에 의하면 20대 남성들은, 남성이 오히려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남성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는 20대 여성이 중심인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진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한다.

천관율·정한울(2019)은 대부분 1990년대 생인 20대 남성이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 맥락이 제거된 공정성에 대한 믿음, 세대(generation) 계약의 붕괴 등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전 세대들과 달리, 자신들은 누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여성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고도성장 세대에게 경제적 기득권 획득 기회를 모두 뺏긴 20대 남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가 아닌 즉자적 손익 계산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철승(2019)은 특히 세대 계약 붕괴에 주목하여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세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현재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86세대가 경제, 정치 권력 모두 독점하고 있으며, 이는 후

속 세대에게 ‘수저’의 형태로 상속되어 지속적인 사회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승(2019)은 세대 간 불평등 문제 즉,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6세대의 과감한 양보와 고용 및 훈련의 안전망 확대를 제안한다.

영국의 EU 탈퇴(BREXIT) 사례에서 우리는 사회 내부 집단의 갈등과 의견 대립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만약 주요 사회·경제정책이 특정 세대 등의 경제 주체에 우호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이 현재화 하고 있다면 이는 다방면에 걸쳐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환주(2019)는 정책을 실시할 때 정책이 초래하게 될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의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세대간 갈등 양상 분석을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 양태를 관찰하는 것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 및 법안에 대해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들은 일정한 정치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투표 행위를 통해 한국 사회의 주요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한국의 주요 정책의 방향성 선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주요 정당이 가지는 정치적 색채를 고려해본다면 각 정당에 대한 지지 양태 분석을 통해 세대별 진보, 보수 성향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대별로 지지하는 정당에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2절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방법론인 컨조인트 분석과 랜덤 패러미터 로짓모형에 대해 논의한다. 3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변수를 검토하며 4절에서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5절은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1. 선행연구

본 논문의 주제인 세대간 차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선행연구로는 우선 강원택(2013)을 들 수 있다. 강원택(2013)은 한국 사회의 특징적 현상인 ‘계급 배반 투표’와 관련해 그 원인과 사회 계층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여 주요 원인을 저소득층에서의 세대와 계층의 혼합에서 찾았다. 한국의 저소득층 유권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층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강한 보수성이 저소득층 유권자의 ‘계급 배반적’ 특성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다(강원택(2013)). 실제로 이들 고령층 유권자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계급 배반적’ 속성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파적 지지나 이념에 있어서 소득 계층별 차이도 그리 강하지 않았다(강원택 2013).

이내영·정한울(2013)은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세대별로 차이를 보인다면 그에 대해, 말 그대로 자연적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보는 관점이 연령효과이며, 한국전쟁, IMF금융위기 등 성장 과정에서의 서로 다른 경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세대효과이다. 이내영·정한울(2013)은 5세 단위의 동일한 출생 코호트(cohort)를 기준으로 16대 대선과 18대 대선까지 투표선호와 정당지지의 변화를 검증하는 종단면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내영·정한울(2013)에 의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적용한 결과, 44세 이하에서는 연령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은 반면, 45세 이상 코호트에서는 세 종수 변수 각각에 대해 모두 일관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고 한다. 즉, (당시 기준) 45세부터 연령효과가 유의미하게 관찰된다는 것이다.

강원택·성예진(2018)은 2017년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20-30대의 젊은 보수와 60대 이상의 나이 든 보수 간에 보수 이념과 관련된 속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강원택·성예진(2018)에 의하면, 기성세대의 경우 진보-보수의 이념을 구분하는 데 외교, 안보 이슈의 강한 영향력이 확인되었지만, 20-30대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복지 정책, 증세 문제 등 구체적인 경제 사안에 대한 이념적 차이가 나타났다. 20대 보수와 60대 보수는 ‘같은 보수’이지만 그 결이 다소 다르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최슬기외(2019)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자료로 사용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6회의 전국선거에서 드러난 세대 간 정치행태를 분석하였다. 최슬기외(2019)에 의하면, 1964년생 이전세대는 보수성향을 보였으며 특히 나이든 고령의 세대일수록 보수성향이 더 강함이 드러났다. 특히 86세대 전반기에 해당하는 1960~64년생은 연령효과와 기간효과를 통제한 후에는 보수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1965~84년생은 비보수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1970~74년생과 1965~69년생이 가장 비보수적인 정치 행태를 보였다. 진보블럭에 이어, 1985~94년생에게서는 다시 보수성이 강화된 특성이 나타났다. 특히 1990~1994년생은 연령효과와 기간효과를 통제하고 나면, 1940년대생에 필적할 만큼 강한 보수성이 나타났다(최슬기 외 2019)고 한다. 총 6회의 걸친 선거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진보블럭과 보수블럭을 도출한 점이 흥미롭다.

우경봉(2020)은 사회 주요현안에 대해 경제 주체가 어떤 정책방향성을 선호하는지 관찰하여, 정책방향성 선택이 진보, 보수, 중도 성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우경봉(2020)에 의하면, 사회현안의 남북통일, 최저임금, 교육, 성소수자 변수에서 정책방향성 선택이 진보, 보수 판단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통일과 성소수자 변수에서의 보수적 선택은 한국 시민의 보수성향 판단 승산(odds)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경봉 2020). 우경봉(2020)은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 보수, 중도 성향층이 어떤 정책방향성을 선호할 것인가를 추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보적 방향성과 보수적 방향성에 대한 독자적 정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은 우선, 데이터 수집 시점이 선거 기간이 아니며 선거결과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 기간 중에는 평상시와 다르게 다양한 정치 이벤트가 추진되어 그로 인한 일상적 정당지지 상황에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이벤트 효과를 배제한 평상시의 정당에 대한 지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를 바탕으로 세대별 차이와 진보, 보수를 논의했다. 또한 각 정당에 지지도를 비교할 때 추정값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분포를 추정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지 상황을 관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또한 학술적 공헌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방법론 중 컨조인트 분석에 참고한 선행연구로는 Louviere et al.(2000), 임종원 외(2001), 최영문·진영근(1999)과 우경봉(2010) 등을 들 수 있다. Louviere et al.(2000)과 임종원 외(2001)은 컨조인트 분석에 필요한 직교설계법 및 기념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다. 유럽지역에 대한 최적 관광 상품 구성을 도출을 시도한 최영문·진영근(1999)은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배낭여행의 주요 속성 간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우경봉(2010)은 자동차의 주요 속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 데이터를 컨조인트 분석에 기반하여 수집하였다. 이 데이터를 이산선택모형으로 분석하여 신차 시장과 중고자동차 시장 간의 관계를 소비자 선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넓은 틀에서 유권자의 선택 행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연구는 설문지 디자인 및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이상의 컨조인트 분석 관련 선행연구로부터 중대한 시

사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랜덤 패러미터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과정에는 Hensher and Greene(2003), Train(2003), 전은하·이성우(2007), 우경봉(2012), Greene(2016) 등이 주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Hensher and Greene(2003)은 이산선택분석의 주요 논리 전개에 참고 되었으며, Train(2003)은 특히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랜덤 패러미터 추정 과정에 참고하였다.

2.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

본 연구의 목적인 응답자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관찰하기 위해, 컨조인트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SP(stated preference)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귀하는 평소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일반 설문 문항을 통해 수집한 RP(revealed preference)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는 선호의 강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컨조인트 분석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여러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지지하는 것은 어느 정당인지 분석이 가능하다.

컨조인트 분석은 명시적인 시장가격 설정이 어려운 재화에 대한 분석에 장점을 가지고 있어 환경 및 교통 수요예측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또한, 기존 제품에 어떤 옵션이 추가되면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는지 측정이 가능하며, 신제품 수요예측 및 가격설정 분석에도 자주 적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다만, 컨조인트 분석은 이러한 장점 뿐만 아니라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응답자가 면접 및 설문 항목에서 답한 것과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면접 및 설문 디자인에 문제가 있거나 조사 대상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비조사를 반복 실시하여, 현실 시장의 핵심내용들을 정확히 반영한 설문 및 인터뷰 디자인이 필요하다(Louviere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Louviere et al. 2000에 따라 직교설계법(orthogonal design)에 의한 설문

디자인을 실시하였으며, 컨조인트 분석의 실행방식 중에서도 선택실험(choice experiment)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 디자인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90개의 데이터 규모로 2회에 걸친 파일럿 테스트를 거친 후 실제 조사를 진행하였다.¹⁾

직교설계에 사용된 속성 및 속성수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정당 지지 분석을 위한 속성 및 속성 수준 설계

속성	1	2	3	4	5
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교육	평준화 교육 적극 실시	평준화 교육 점진적 실시	현재 상황 유지	경쟁 교육 점진적 도입	경쟁 교육 적극 도입
다문화	적극적 수용	선별적 수용	현재 상황 유지	반대 입장	적극 반대하며 외국인노동자 비율 축소 추진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	종합부동산세 소폭 인상	현재 상황 유지	종합부동산세 소폭 인하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하
성소수자	동성결혼 인정 등 성소수자 관련 정책 조속히 시행	성소수자 관련 정책 긍정적으로 신중히 검토	현재 상황 유지	성소수자의 제도적 인정에 부정적	성소수자 관련 문화 및 제도적 인정에 적극 반대
최저임금	2020년 10% 인상(시급 9,190원, 월급 192만원)	2020년 5% 인상(시급 8,770원, 월급 183만2천원)	현재 상황 유지(시급 8,350원, 월급 174만5천원)	2020년 5% 인하(시급 7,930원, 월급 165만8천원)	2020년 10% 인하(시급 7,520원, 월급 157만1천원)

출처: 저자 작성

1) 컨조인트 분석 과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Holmes and Adamowicz(2003)과 임종원 외 (2001)을 참고하였다.

속성표를 바탕으로 생성한 실제 설문 문항의 예시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정당 지지 양태 관찰을 위한 컨조인트 문항 예시

구분	정책 1	정책 2	정책 3	정책4
정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제시된 선택지 중 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며, 세부 정책 도 동의하지 않습 니다.
교육	현재 상황 유지	평준화 교육 적극 실시	평준화 교육 점진적 실시	
다문화	선별적 수용	현재 상황 유지	적극적 수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소폭 인하	종합부동산세 소폭 인상	현재 상황 유지	
성소수자	현재 상황 유지	성소수자의 제도적 인정에 부정적	성소수자 관련 정책 긍정적으로 신중히 검토	
최저임금	2020년 5% 인상 (시급 8,770원, 월급 183만2천원)	현재 상황 유지 (시급 8,350원, 월급 174만5천원)	2020년 5% 인하 (시급 7,930원, 월급 165만8천원)	

출처: 저자 작성

실제 설문 문항에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과 정책을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표 2>의 내용과 같은 선택지가 제시되었다.²⁾ 선택지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에는 설문조사 실시 시기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원내 정당들과 함께, 교육, 부동산, 최저임금 등의 한국 사회 주요 이슈가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컨조인트 문항을 응답자에게 반복 질문하여 세대별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선명하게 구분되는지 관찰하고자 했다.

2) 직교설계법, 선택실험 및 질문 카드 생성 등에 관해서는 Louviere et al.(2000)을 참조하였다.

3. 랜덤 패러미터 로짓 모형

컨조인트 분석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 해석에는 이산선택분석(discrete choice analysis)의 랜덤 패러미터 로짓(random parameter logit)모형이 채용되었다. 랜덤 패러미터 로짓모형은 혼합로짓(mixed logit) 모형이라고도 불리며, 로짓모형이 가지는 선택지 간 독립성을 가정하는 IIA (independence from irrelevant alternatives) 가정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유연성이 높은 로짓모형으로 알려져 있다(Hensher & Greene 2003).

이산선택분석은 경제 주체의 선택 행위에 대해, 관찰 가능한 확정 항과 관찰 불가능한 변동항으로 나누어 표현한다. 로짓모형의 가정에 따라 식 전개를 하면 다음 식 (1)과 같은 조건부 로짓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Greene 2016).

$$P_{in} = \frac{\exp(\lambda V_{in})}{\sum_{j \in A} \exp(\lambda V_{jn})} \quad (1)$$

조건부 로짓모형은 IIA가정이 충족될 때 불편추정량이 되는데, 트레인(K. Train)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맥패든(D. McFadden)의 일련의 연구에 의해 로짓모형의 IIA 가정을 완화한 랜덤 패러미터 로짓 모형이 개발되었다.

랜덤 패러미터 로짓 모형에서는 특정 경제 주체 n 이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한 선택지 a 를 선택할 확률을 아래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Train 2003).

$$P_{an}^* = \Pi_{t=1}^T [\exp(\beta'_n x_{itn}) / \sum_j \exp(\beta'_n x_{itn})] \quad (2)$$

식 (2)에서 β 는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그래프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주체의 선택행위에서 특정 속성에 대한 선호 분포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선호 정책 선택 과정에서 β 를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 분포로 해석하기로 한다. 다만, 식 (2)의 계산에서 언제나 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우법을 적용하여 β 를 추정한다.³⁾

논문의 연구 방법론 관련해 컨조인트 분석과 랜덤 패러미터 로짓모형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했다. 다음 절에서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통계 모형에 사용된 변수에 대해 살펴보자.

III.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변수 검토

앞 절에서 검토한 컨조인트 분석에 기반한 설문지가 디자인 되었고, 이를 설문조사 전문 기업에 의뢰하여 수집된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전국 16개 행정구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10일~24일의 2주간 진행되었다.⁴⁾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응답 1,250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⁵⁾

- 3) 이상의 랜덤 패러미터 로짓모형 관련 상세 내용 및 식 전개는 Train(2003) 및 Greene(2016)을 참조하였다. 또한 모수 추정에는 NLOGIT version6이 사용되었으며, halton sequence 1000회 추출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 4) 세종특별자치시의 2019년말 현재 인구는 약 35만명으로 전체 1,250명 샘플에서 자치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충청북도의 결과에 포함시켰음을 밝힌다.
- 5) 설문조사의 결과로 수집된 일반 설문 항목에 대한 분석은 우경봉(2020)을 통해 발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사용되는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우경봉(2020)과 일치한다. 본 논문은 지면의 한계 및 논점 상이 등의 문제로 우경봉(2020)에서 다루지 못했던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자료 분석임을 밝힌다.

표 3.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연령	만 20세 ~ 29세	14.8%
	만 30세 ~ 39세	19.1%
	만 40세 ~ 49세	21.9%
	만 50세 이상	44.2%
거주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9.4%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10.4%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6.2%
	전라권(광주/전북/전남)	9.9%
	강원권(강원)	3.0%
	제주권(제주)	1.1%
성별	여 성	51.2%
	남 성	48.8%
결혼	싱 글	31.4%
	기 혼	68.6%
근로형태	종업원이 있는 사업주	3.7%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	8.9%
	임금(급여)을 받는 근로자	57.6%
	가사(주부)	18.4%
	학생	4.4%
	휴직 또는 무직	8.0%
월소득	200만원 미만	11.8%
	200만원 ~ 300만원 미만	15.0%
	300만원 ~ 400만원 미만	19.5%
	400만원 ~ 500만원 미만	19.5%
	500만원 ~ 600만원 미만	14.0%
	600만원 ~ 700만원	8.2%
	700만원 이상	12.0%
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1.1%
	고등학교 졸업	23.0%
	대학교(2, 3, 4년제) 졸업	66.7%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9.2%

아래 <표 4>에 분석 모형에 사용된 변수 일람을 제시했다. 종속 변수는 응답자가 제시된 정당과 정책의 결합 중 가장 선호하는 선택지인 1~4번이며 4번이 참조집단(reference group)이다.

표 4. 분석 모형에 사용된 변수

변 수	내 용	
종속변수	CHOICE	정당과 정책의 결합인 선택지 1~4번
독립변수	WAGE	최저임금 수준
	RST	종합부동산세 수준
	EDC	교육 방향성
	MCL	다문화사회 수용 정도
	LGBT	성소수자 사회적 권리 인정
	PT1	더불어민주당 (reference group)
	PT2	자유한국당
	PT3	바른미래당
	PT4	민주평화당
	PT5	정의당
	ASC	상수항

독립변수 중 정책 변수에는 유권자가 정당에 대한 지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배경이 되며, 최근 한국에서 논쟁적 이슈로 판단되는 최저임금, 종합부동산세, 교육, 다문화사회, 성소수자 관련 사안을 포함시켰으며 정책 변수의 상세 내용은 앞서 제시된 <표 1>과 같다. 전체 표본 수는 1,250명이지만 이를 인구 비례에 맞추어 각 세대별로 배분하였으므로 각 샘플 수는 20대 185명, 30대 239명, 40대 274명, 50대 이상 552명이다. 50대 이상의 샘플 수는 20대, 30대의 두 배 이상으로 각 세대 간 샘플 수의 편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185명의 샘플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분해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의 샘플 수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본 논문의 논점인 정당에 대한 세대별 지지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을 진행하기 위해 성별, 학력,

소득, 지역 등의 인구통계 변수는 모두 통제하고 정당 및 정책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진행될 것이다.

결과 분석에서 각 세대별로 선호하는 방향으로의 최저임금 수준, 종합부동산세 수준, 교육 방향성, 다문화사회 수용 정도, 성소수자 사회적 권리 인정 및 지지 정당 등이 관찰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책변수에 있어서는 속성수준 값이 증가할 경우, 한국 사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적용할 때 보수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감소할 경우 진보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사안에 있어 속성수준 1은 ‘동성결혼 인정 등 성소수자 관련 정책 조속히 시행’이며, 속성수준 5는 ‘성소수자 관련 문화 및 제도적 인정에 적극 반대’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등의 정책변수에서 양(+) 부호가 관찰될 경우 해당 세대에서는 보수적 방향성에 동의(또는 선호 증가), 음(-) 부호가 관찰될 경우 진보적 방향성에 동의(또는 선호 증가)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의 논점과 관련해, 특정 세대에게 있어 정책변수의 변화에 상관없이 선명하게 지지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PT1~PT5)의 계수 값은 해당 세대에서 높게 추정될 것이다. 랜덤 패러미터 로짓모형 분석을 위해 PT1(더불어민주당)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세대별 정당 지지에 대한 양태를 관찰하기 위해 계수(평균) 값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를 추정하여 선호분포 곡선을 추정할 것이다.

IV. 분석결과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추정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세대별 선호 정당 및 정책 추정 결과

구분 변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b	S.I	S.E.	b	S.I	S.E.	b	S.I	S.E.	b	S.I	S.E.
PT2	-0.652	***	0.244	-1.463	***	0.313	-0.682	***	0.226	-0.953	***	0.208
PT3	-1.172	***	0.374	-1.329	***	0.288	-0.791	***	0.258	-0.693	***	0.181
PT4	-1.099	***	0.347	-1.829	***	0.411	-1.157	***	0.301	-0.639	***	0.168
PT5	-0.859	*	0.440	-0.669	**	0.318	-0.579	**	0.274	-0.667	***	0.191
WAGE	-0.144	***	0.048	-0.194	***	0.045	-0.062		0.039	-0.040		0.028
RST	-0.073		0.049	-0.114	**	0.047	-0.039		0.040	-0.052	*	0.029
EDC	-0.108	**	0.050	-0.094	**	0.046	-0.022		0.041	-0.011		0.029
MCL	0.051		0.049	-0.013		0.046	0.032		0.039	-0.001		0.029
LGBT	-0.063		0.050	0.048		0.044	0.028		0.040	0.039		0.028
ASC1	0.752	*	0.393	-0.150		0.512	0.840	**	0.399	0.564	**	0.252
ASC2	0.619		0.390	0.254		0.499	0.874	**	0.408	0.230		0.253
ASC3	0.512		0.382	1.032	**	0.479	0.840	**	0.411	0.636	**	0.252
표준편차												
PT2	0.972	***	0.249	1.988	***	0.320	1.625	***	0.303	1.946	***	0.253
PT3	2.320	***	0.527	1.782	***	0.421	2.472	***	0.362	1.816	***	0.224
PT4	1.753	***	0.563	3.087	***	0.653	2.186	***	0.378	1.542	***	0.202
PT5	1.911	*	1.009	2.081	***	0.768	2.150	***	0.499	1.596	***	0.285
data	185			239			274			552		
pseudo R.	0.083			0.111			0.068			0.057		

- 주: 1. S.L.은 significant level, S.E.는 standard error를 의미한다.
 2. *, **, ***은 통계적 유의도를 나타내며 각각 p<0.1, 0.05, 0.01을 의미한다.
 3. Pseudo R.은 Mcfadden pseudo R-squared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seudo R^2 = 1 - \log L / \log L_0$$

우선 데이터 수는 전체 샘플 1,250명에서 각 세대별 비율에 맞게 배분된 값이며, 분석 모형은 1% 유의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정책변수를 먼저 확인해 보면, 최저임금 수준이 현재보다 더 증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20대와 30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며 선호되었다. 40대와 50대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았지만, 계수의 절대값 크기를 순서대로 비교하면 30대(-0.194) > 20대(-0.144) > 40대(-0.062) > 50대 이상(-0.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변수에서는 30대와 50대 이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결과가 관찰되었으며, 30대가 50대 이상에 비해 더욱 강력하게 종부세 인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변수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두 세대 모두 타 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가 가장 높은 강도로 평등 교육문화를 선호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다문화사회 및 성소수자 변수에서는 모든 세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두 변수에서 대한 세대별 응답은 특정 방향성을 가진다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의견이 존재하거나 또는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의 의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상수항(ASC1 ~ 3)은 각 선택지의 평균적인 선택확률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정당 변수를 살펴보자. 정의당(PT5)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1%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가 추정되어, 정책변수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값들이 추정되었다. 이는 유권자들이 세부 정책 비교를 통해서도 투표행위를 결정하지만, 여러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정당 지지를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모든 세대가 참조집단인 더불어민주당(PT1)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 정당 변수의 모든 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또한, 정당에 대한 선호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계수의 표준편차 값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져야 하는데 20대의 정의당(PT5, 10%)을 제외하면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추정되었다.

각 세대별 지지정당 순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각 세대별 지지정당 순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20대	1	2	5	4	3
30대	1	4	3	5	2
40대	1	3	4	5	2
50대 이상	1	5	4	2	3

<표 6>의 세대별 지지정당 순위를 보면, 20대에서 자유한국당 2위, 50대 이상에서 자유한국당이 5위인 점이 눈에 띈다. 또한 30대와 40대에서 정의당이 2위인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세대별 정당에 대한 지지 양태를 보다 상세히 관찰하기 위해, 표5의 계수 및 표준편차 값과 각 응답자별 정당 선호 추정치를 바탕으로 선호 분포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 1~4]와 같다.⁷⁾

- 6) 컨조인트 분석과 함께 설정된 일반 설문항목에서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여부를 물었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2019년 1월 현재 주요 정당의 지지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30.5%, 자유한국당 8.2%, 정의당 7%, 바른미래당 3.9%, 민주평화당 1%, 대한애국당 0.3%, 민중당 0.2%, 그 외 당 0.2%, 평소 지지 정당 없음 48.7% (이상의 수치는 반올림한 값임).
- 7) [그림 1~4]는 각 2매의 그림으로 구성되며, 첫번째 그림은 이론적 정규분포 곡선이며, 두번째 그림은 각 응답자별 정당 선호 추정치를 바탕으로 도출된 선호 분포(kernel density)이다. 이론적 정규분포 곡선을 통해 전체적 경향 파악이 가능하며, 선호 분포를 통해서도 보다 직접적인 선호 분포 형태 파악이 가능하다.

그림 1. 20대의 정당 선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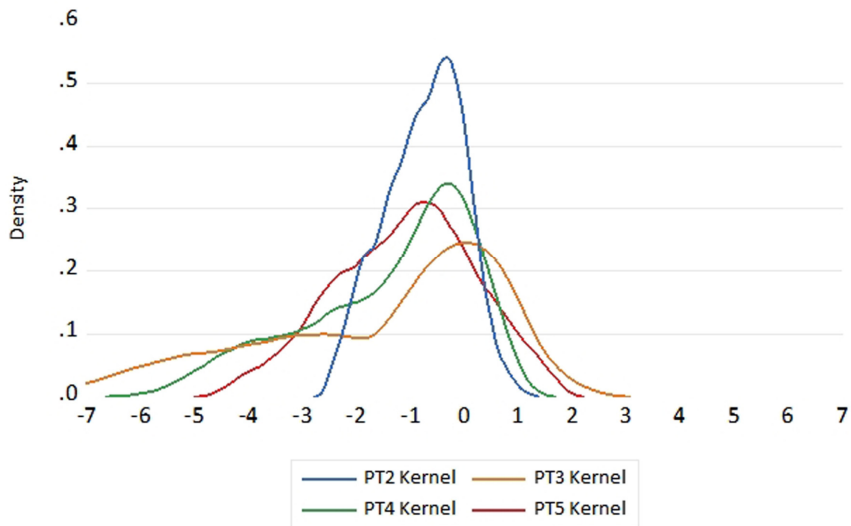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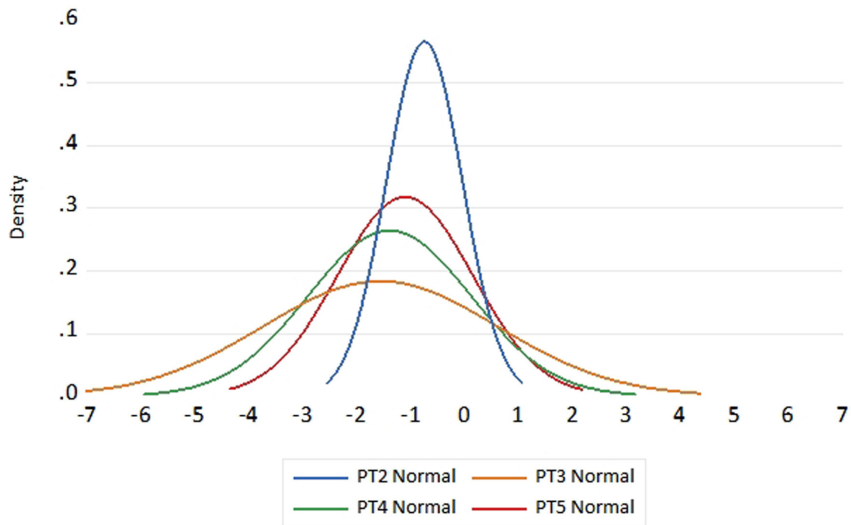


그림 2. 30대의 정당 선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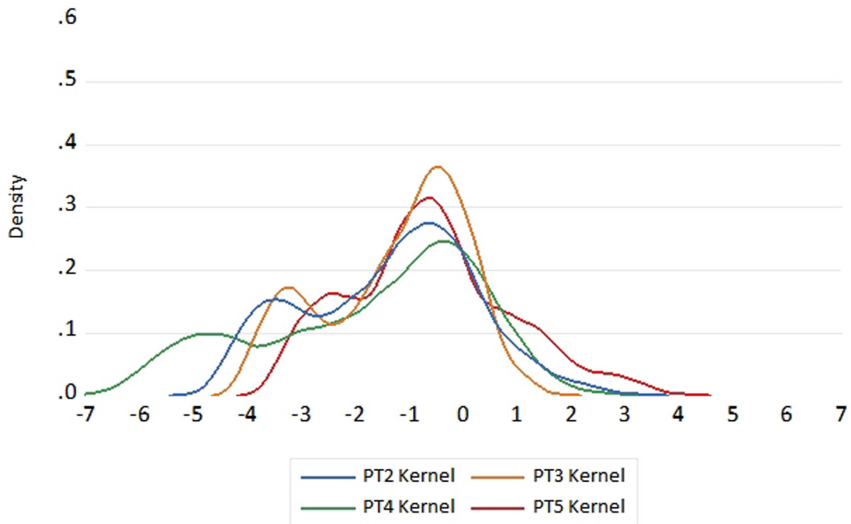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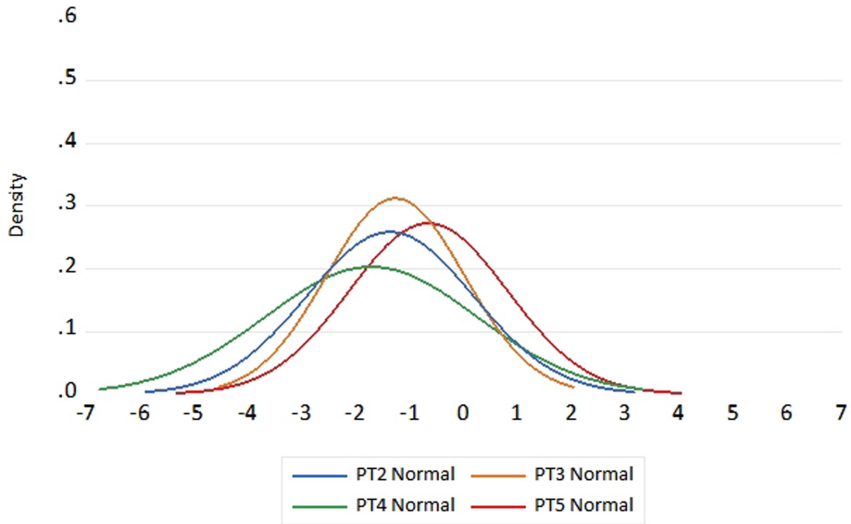


그림 3. 40대의 정당 선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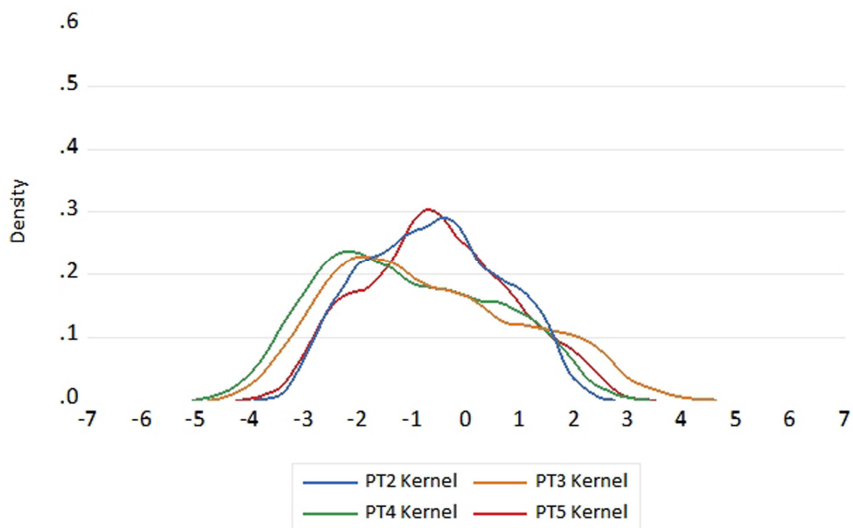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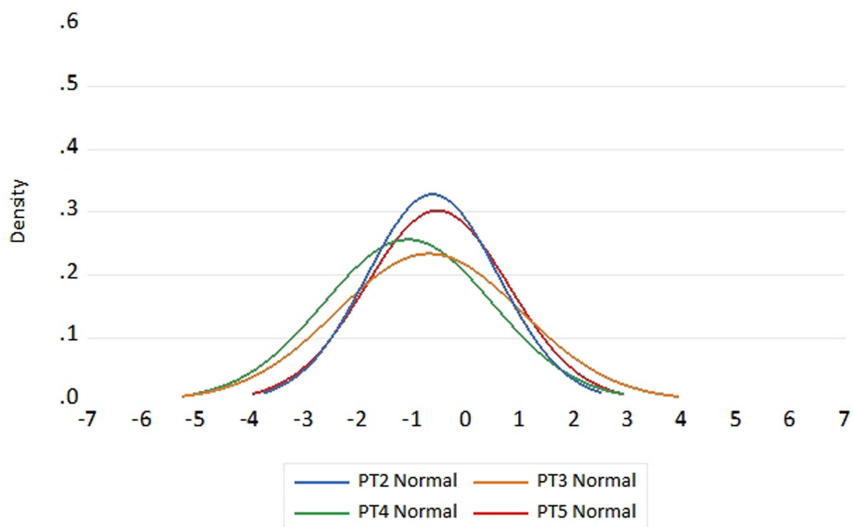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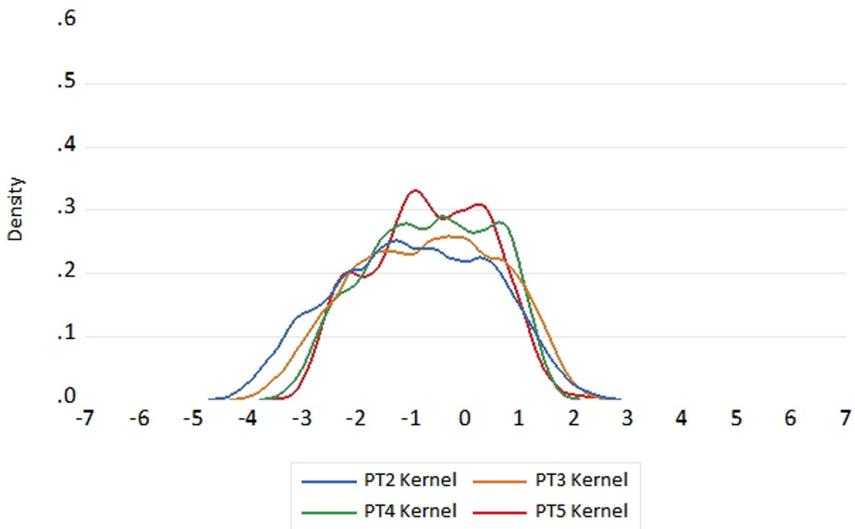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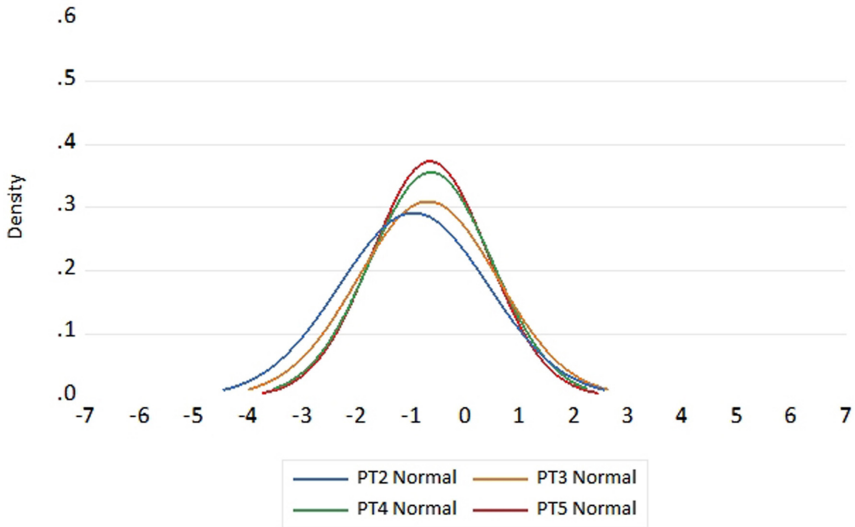


그림 4. 50대 이상의 정당 선호 분포



우선 [그림 1]의 20대 정당 선호 분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높고 선명한 지지 상황이다. <표 5>의 추정 결과에서 20대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는 표준편차 값이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전세대를 통틀어 가장 작은 것이다. 이는 선호 분포의 형태에서 아래 폭이 좁고 평균값 주변에 많은 추정치가 몰려 있어 분포의 형태가 뾰족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주로 대학생 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세대에서 보수계열로 분류되는 정당에 대해 선명하고 강도 높은 선호 분포가 추정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그림 1에서 자유한국당의 선호 분포와 비교해 볼 때 바른미래당은 폭이 넓은 선호 분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음(-) 방향으로 매우 넓게 추정치가 분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⁸⁾

[그림 2]의 30대 선호 분포에서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이 음(-) 방향으로 매우 넓게 추정치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바른미래당이 정의당 다음으로 30대 지지 정당 3위를 기록했지만 표준편차는 정의당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가장 뾰족한 형태로 선호 분포가 도출되었다.

[그림 3]의 40대에서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음(-) 방향으로 폭 넓게 추정치가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며, 상대적으로 정의당과 자유

8) 이와 관련해 20대 선호분포의 특징이 성별에 의해 구분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당 선호 분포 추정을 20대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추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20대 여성의 정당 선호 분포 곡선은 20대 전체의 분포와 형태가 다르며 더불어민주당 다음으로 정의당이 2위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20대 전체의 결과와 다르다. 그에 비해, 20대 남성의 정당 선호 분포 곡선은 전반적으로 20대 전체의 분포와 형태가 유사하며, 자유한국당의 표준편차가 작으며 동시에 타 정당보다 선명하게 높은 수준의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의해 20대 전체의 선호 분포 곡선의 형태는 20대 남성의 선호가 배경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20대 남성의 보수계열 정당 지지를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천관울·정한울(2019)은 20대 남성이 마이너리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보수화 되었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세계적으로도 보수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받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20대 남성의 선명한 지지가 관찰된 것과 관련해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당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선호 추정치가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관찰된다. 20대와 함께 40대에서도 자유한국당의 표준편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추정된 점 역시 흥미롭다.

[그림 4]의 50대 이상 세대에서는 계수의 평균 추정치에서는 각 정당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당 지지 순위에서 가장 낮은 것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그림 5]의 두번째 그림에서 자유한국당의 선호 추정치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양(+) 방향으로도 가장 큰 값을 가지지만, 음(-) 방향으로 폭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50대 이상 세대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강하게 선호하는 응답자들도 있으며, 매우 강하게 비선호하는 응답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길항력에 의해 50대 이상 세대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균적인 지지 값이 낮게 추정된 점 역시 본 연구의 흥미로운 발견점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논문은 전국 단위로 실시된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주요 정당에 대한 지지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떤 양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논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컨조인트 분석에 기반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랜덤 패러미터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변수 중 교육 변수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두 세대 모두 타 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가 가장 높은 강도

로 평등 교육문화를 선호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다문화사회 및 성소수자 변수에서는 모든 세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주요 정당에 대한 계수는 높은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값들이 추정되었다. 이는 유권자들이 세부 정책 비교를 통해서도 투표 행위를 결정하지만, 여러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정당 지지를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인다. 모든 세대가 참조집단인 더불어민주당(PT1)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 정당 변수의 모든 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대(남성)에서 보수계열 정당에 대한 선명한 지지가 관찰되었다. 주로 대학생 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세대에서 보수계열로 분류되는 정당에 대해 선명하고 강도 높은 선호 분포가 추정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20대의 보수화’ 이슈와 관련 깊은 발견으로 보인다.

넷째, 30대와 40대에서 진보계열 정당에 대한 지지 순위가 2위인 것이 관찰되었다. 정의당은 2019년 1월 기준 원내 소수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국 인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30대와 40대의 높은 지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표5의 추정된 표준편차 값을 보면 30대와 40대 모두에서 정의당의 표준편차 값이 자유한국당의 표준편차 값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선호의 방향성 및 비선호의 방향성 모두 상대적으로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 지지 상황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50대의 보수계열 정당에 대한 선호 추정에서 높은 수준의 표준편차 값이 관찰되었다. [그림 4]를 통해 50대 이상 세대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선호 추정치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양(+) 방향으로도 가

장 큰 값을 가지지만, 음(-) 방향으로 폭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50대 이상 세대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강하게 선호하는 응답자들도 있으며, 매우 강하게 비선호하는 응답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길항력에 의해 50대 이상 세대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균적인 지지 값이 낮게 추정된 점 역시 본 연구의 흥미로운 발견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의 정치·경제 주체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세대 간의 차이를 관찰하는 문제는 정당에 대한 지지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고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정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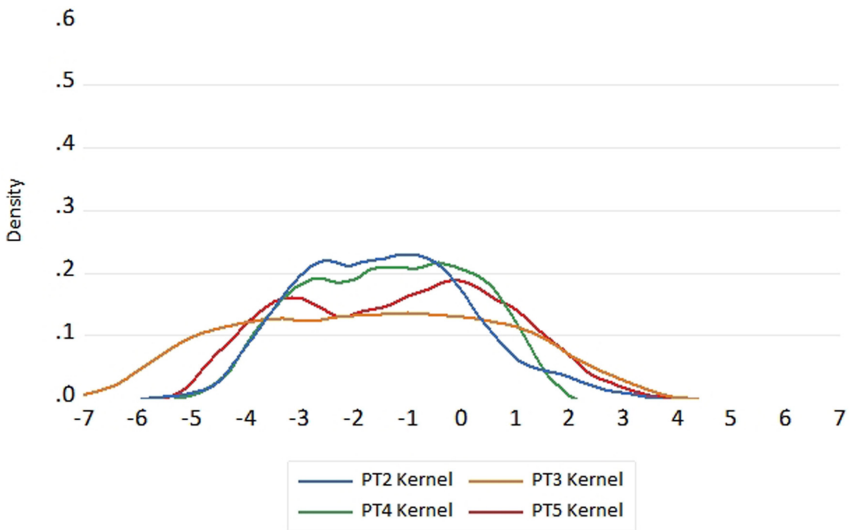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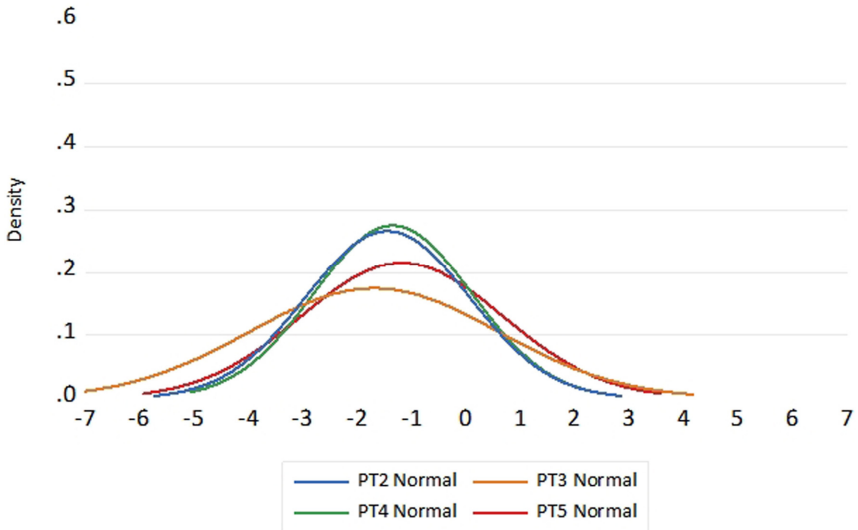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배반투표와 사회계층, *한국정당학 회보*, 12(3), 5~28.
- 강원택·성예진. (2018).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 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7(1), 205~240.
- 데이비드 컬렌더 외 지음. 박만섭 옮김. (2011). *경제학, 최전방의 동향*, 지식을 만드는 지식.
- 서환주. (2019). 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탐색: 조절 이 론 및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현장성과 다양성 강화를 위한 논쟁과 소통의 장*, 한국사회경제학회 2019 가을학술대회 자 료집.
- 우경봉. (2010). Nested logit 모델 추정을 이용한 신차-중고자동차 선택 분석, *산업조직연구*, 18(3), 37~58.
- 우경봉. (2012).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에 대한 지불의사액 측정에 관한 연구 - 소비자 선호 분석을 통한 접근 -, *한일경상논집*, 57(3), 209 ~ 225.
- 우경봉. (2020). 경제 주체의 정책선호 방향과 진보, 보수 선택, *산업연 구*, 44(2), 87~116.
-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효과, *의정연구*, 19(3), 39~83.
- 임종원·박형진·강명수. (2001). *마케팅조사방법론*, 법문사.
- 임홍택. (2019). *90년생이 온다*, whale books.
- 전은하·이성우. (2007). 수도권 통근자의 통행수단 선택 분석: 1995-2000, *서울도시연구*, 8(4), 107~125.
- 조너선 하이트 지음, 왕수민 옮김. (2014). *바른 마음*, 웅진지식하우스.
- 천관울·정한울. (2019). *20대 남자*, 시사인북.
- 최슬기·이윤석·김석호. (2019). 세대별로 투표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달

- 라지는가?, *한국사회*, 20(2), 103~130.
- 최용문·진영근. (1999). 유럽 배낭여행 상품 선호구조에 따른 최적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 컨조인트 분석을 중심으로 -, *관광정책학연구*, 5(2), 185~211.
- Greene, H. G. (2016). *NLOGIT VERSION6 Reference Guide*, Econometric Software, Inc.
- Hensher, D. A. and Greene, W. G. (2003). The mixed logit model: the state of practice, *Transportation*, 30(2), 133-176.
- Louviere, J. J., Hensher, D. A. and Swait, J. D. (2000). *Stated Choice Methods: Analysis and Appl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velt, D. and Train, K. (1998). Mixed Logit with Repeated Choices: Households' Choices of Appliance Efficiency Level,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4), 647-657.
- Train, K. (2003). *Discrete Choice Methods with Sim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nuscript received: Aug 16, 2020; Review completed: Aug 25, 2020; Accepted: Sep 17, 2020

<부록>

부록 1. 20대 여성의 정당 선호 분포



부록 2. 20대 남성의 정당 선호 분포

